

2011

해외의료봉사 _ 필리핀 3차 2011. 10. 1~8

밭에 숨겨진 보물의 의미

하느님께 신뢰를 두며 어떠한 처지든 감사하며
사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함과 공허감을 느끼며 사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건욱 안토니오 신부
성안드레아신경정신병원 원목실장

내 손을 잡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며 축복을 청하는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

생전 처음 가본 필리핀 나보타스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장
면입니다. 아이들을 통해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심성을 온전히 느
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청하는 어린 아이들 덕
분에 이제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순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 나보타스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곳
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 청년, 장년, 노인들은 좁고 미로처럼 엮여 있는 골목길을
할 일 없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길'이라 부르기에 매우 비좁았고, '집'이라 하기엔 협
소하며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방'이라 명명하기엔 너무 허름했습니다. 살 곳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가 살고 있는 방 한 칸이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진료가 시작되자, 배가 부른 침대 미혼모와 이미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침대 소녀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
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의 시선에서 나보타스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게으르며 대책 없이 사는 빈



관한 사람들로 보여 질 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두며 어떠한 처지든 감사하며 사는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늘 충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허전함과 공허감을 느끼며 사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비록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들이 빈곤이라는 악순환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자유스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는 밭에 보물이 묻힌 것을 알고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밭을 파서 가져가면 그만인 것을 농부는 미련하게도 전 재산을 털어 그 밭을 사고, 다시 그것을 묻고 거기에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약삭빠르게 배추밭의 배추 사듯이 밭 대기로 사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털어 그 밭을 사고 그 곳에 머물며 삽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아닌 보물이 묻혀 있는 밭, 숨겨진 밭을 삽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나보타스라는 숨겨진 밭에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함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울러 이곳에 숨겨진 보물의 의미를 알고 행해진 의료봉사 활동은 사랑의 날개 짓이었고, 하느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휴가를 나보타스에서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이 밭에서 '사랑의 불씨'를 선물로 받았습시다. 이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결심했습니다.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깨어 있으며, 이 숨겨진 보물이 묻혀진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보타스 사람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이들, 당신의 자녀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아,
모태에서부터 업혀 다니고, 태중에서부터 안겨 다닌 자들아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 낸다.” (이사 46,3-4)

마지막으로 복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말씀으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